

2016년 의료 해외진출 현황 분석

의료해외진출지원단
하지봉, 양지영

I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의료기관의 누적 해외진출은 '16년 20개국 155건으로, '15년 17국 141건 대비 10% 증가함
- 「의료해외진출법」으로 인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15.12월) 및 시행('16.6월)
-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의료 해외진출 현황 조사를 실시함

II 조사 대상 및 방법

- '15년 현황조사 결과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및 기업
- '16년 언론보도를 통해 해외진출 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 및 기업
- 「의료해외진출법」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서류를 제출한 의료기관

'16년 20개국 155건의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운영중

신규 진출국가는 방글라데시, 카타르, 페루 3개국이며, 동남아, 러시아·CIS 등 신흥 시장 개척을 통한 진출국가 다변화전망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금융조달 수요가 확대될 전망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종합 진료, 정형·신경외과, 건강검진 등 전문 특성화 분야 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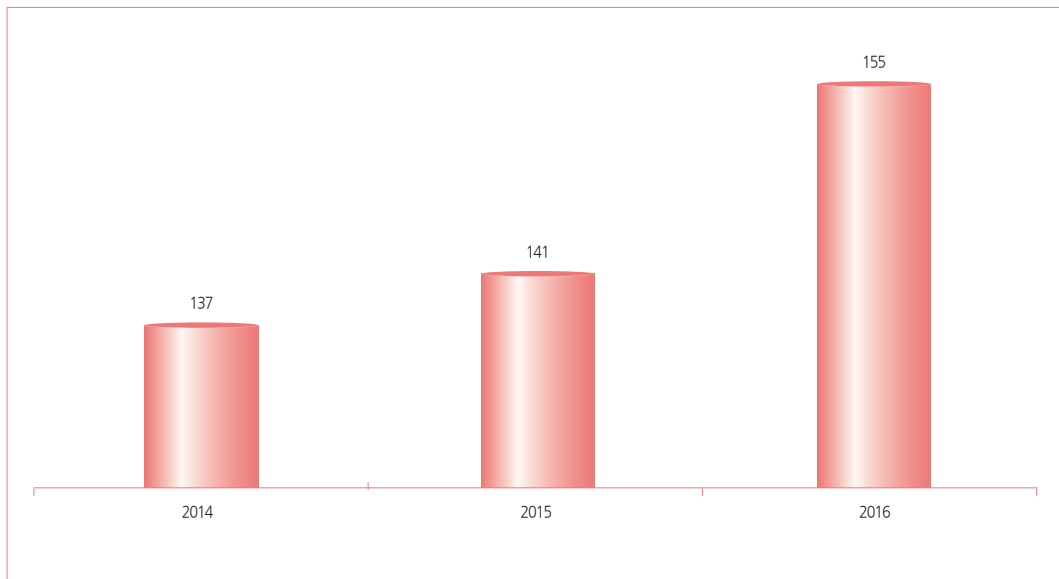
Ⅲ

결과 분석 내용

1. 국내 의료기관 진출 현황

■ 연도별 진출 현황

-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5년 누적 141건에서 '16년 155건으로 14건 증가함
- 해외진출 누적건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4년대비 '15년 증가율 3%에서 '15년대비 '16년 10%로 증가함



주) '16년도 현황 조사 시 '14년도 이전 진출 12건이 추가로 확인되어, '14년 누적진출 건수를 이전에 발표한 125건에서 137건으로 조정함

〈그림 1. 연도별 진출 현황〉

■ 진출국가별 운영현황(누적치 기준 분석)

- (진출국가)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운영중인 국가는 '15년 17개국에서 '16년 2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16년 신규 진출국가는 방글라데시, 카타르, 페루 3개국으로 나타남
- (국가별 운영현황) '16년 운영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 59건,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카자흐스탄 7건, UAE 7건임
- '15년 대비 '16년 해외진출 건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 미국 등이며, 중국의 비중이 38.1%로 가장 크고, 그 다음 미국(25.8%) 순으로 나타남

<표 1. 국가별 진출현황 변화>

(단위: 건)

진출국가		2014		2015		2016	
		누적	비중(%)	누적	비중(%)	누적	비중(%)
'15년까지 기진출 17개국	중국	50	36.5	53	37.6	59	38.1
	미국	34	24.8	36	25.5	40	25.8
	베트남	9	6.6	8	5.7	9	5.8
	카자흐스탄	6	4.4	7	5.0	7	4.5
	UAE	5	3.6	7	5.0	7	4.5
	몽골	11	8.0	7	5.0	6	3.9
	인도네시아	6	4.4	6	4.3	6	3.9
	말레이시아	2	1.5	3	2.1	3	1.9
	일본	2	1.5	2	1.4	3	1.9
	대만	3	2.2	2	1.4	2	1.3
	싱가포르	2	1.5	2	1.4	2	1.3
	태국	2	1.5	2	1.4	2	1.3
	필리핀	1	0.7	2	1.4	2	1.3
	인도	1	0.7	1	0.7	1	0.6
	캐나다	1	0.7	1	0.7	1	0.6
	사우디아라비아	1	0.7	1	0.7	1	0.6
	벨라루스	0	0.0	1	0.7	1	0.6
'16년 신규진출 3개국	캄보디아	1	0.7	0	0.0	0	0.0
	방글라데시	0	0.0	0	0.0	1	0.6
	카타르	0	0.0	0	0.0	1	0.6
	페루	0	0.0	0	0.0	1	0.6
합계		137	100.0	141	100.0	155	100.0

■ 진출형태별 운영현황(누적치 기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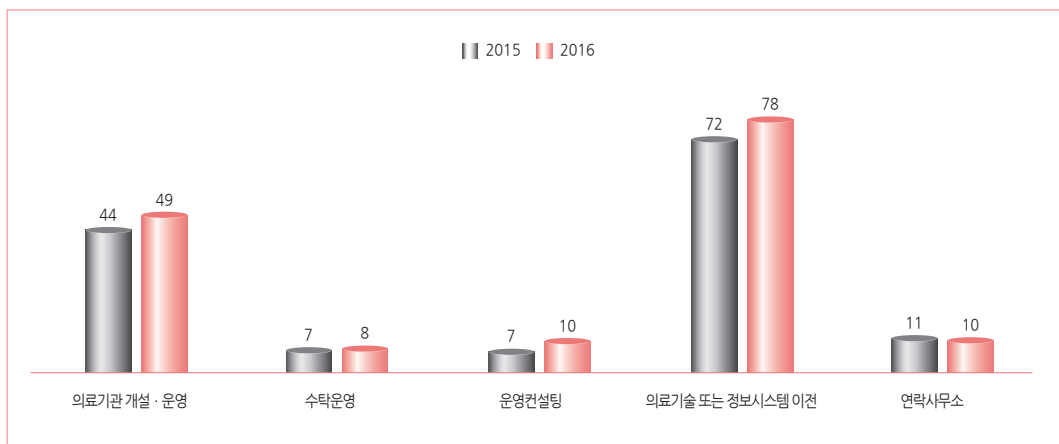
- (진출형태별) '16년 운영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155건을 진출형태별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운영 49건, 수탁운영 8건, 운영컨설팅 10건, 의료기술 또는 정보 시스템 이전 78건, 연락사무소 10건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개설·운영) 중국, 일본, 카타르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사례가 증가했으며, 일부 피부·성형 및 치과 병원은 다년간 아시아지역 진출 경험을 축적하고,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운영 및 수익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진출로 선회하는 상황임
- (수탁운영 및 운영컨설팅) 중국, 벨라루스에서 수탁운영 및 운영컨설팅 사례가 증가했으며, 국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병원경영 노하우를 활용한 수탁운영 및 운영컨설팅 방식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공사례가 창출됨

-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중국, 미국, 베트남에서 의료기술 이전 프로젝트가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본격적 직영점 개원(의료기관 개설·운영)에 앞서 현지 시장상황 분석을 위해 실패 위험이 적은 프랜차이징 형태 진출(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을 확대함

* 치과의 중국, 미국 가맹점(프랜차이즈) 계약이 확대되었으며, 페루 원격의료시스템(ICT) 수출 프로젝트가 새롭게 추가됨

- (연락사무소) 현지 시장상황 분석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립된 몽골의 연락사무소가 감소하였으며, 현지병원 설립 완료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2.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정하는 진출형태별 운영현황〉

〈표 2. '16년 국가별 진출형태 분류〉

(단위: 건)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연락사무소		합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중국	13	16	2	3	5	6	32	33	1	1	53	59
미국	10	10	0	0	0	1	24	27	2	2	36	40
베트남	4	4	1	1	0	0	2	3	1	1	8	9
카자흐 스탄	5	5	0	0	0	0	1	1	1	1	7	7
UAE	1	1	3	3	1	1	1	1	1	1	7	7
몽골	1	1	1	1	0	0	2	2	3	2	7	6
인도네 시아	4	4	0	0	0	0	1	1	1	1	6	6
말레이 시아	0	0	0	0	0	0	2	2	1	1	3	3
일본	1	2	0	0	0	0	1	1	0	0	2	3

	의료기관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연락사무소		합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15년	'16년
기타	5	6	0	0	1	2	6	7	0	0	12	15
합계	44	49	7	8	7	10	72	78	11	10	141	155

주1) '16년 기타(국가) : 싱가포르(2), 대만(2), 태국(2), 필리핀(2), 방글라데시(1), 인도(1), 카타르(1), 사우디아라비아(1), 캐나다(1), 페루(1), 벨라루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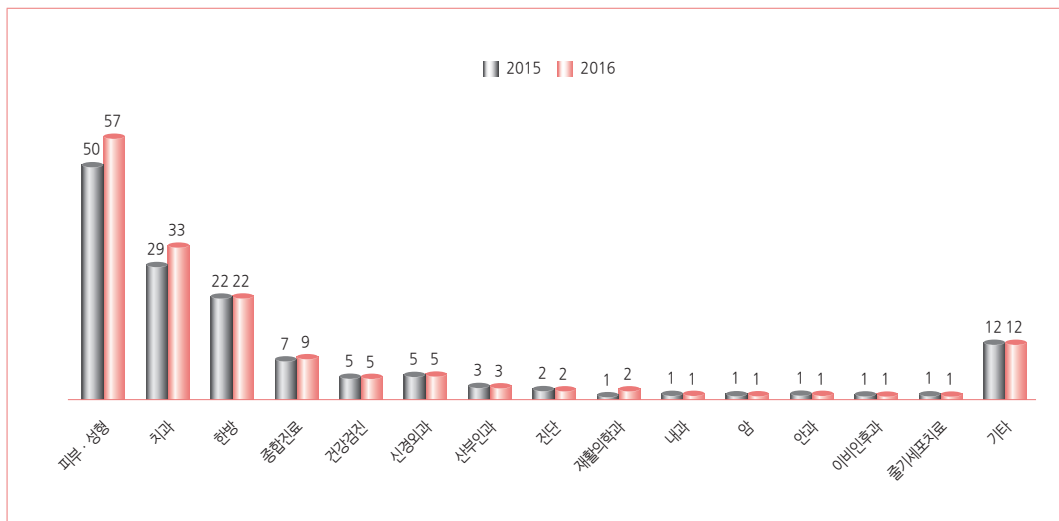
주2) 진출형태 분류

- 1) 의료기관 개설·운영 : 해외직접투자(단독투자, 합자/합작투자)를 통해 해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 2) 수탁운영 : 국외 의료기관을 수탁운영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3) 운영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4)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 무형자산(의료기술, 브랜드 등) 이전의 대가로 로열티를 수령하거나 병원정보시스템(HIS) 및 원격의료시스템(ICT)을 수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령
- 5) 연락사무소 : 해외진출 시장상황 분석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외에 설립된 연락사무소('16년 이전 해외진출로 분류된 건만 포함하였으며, '16년 이후 연락사무소는 해외진출로 분류하지 않음)

■ 진출진료과목 운영현황(누적치 기준 분석)

- ① (진료과목별)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종합진료 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원격의료시스템(ICT) 수출 1건이 새롭게 추가됨

-진료과목별로는 피부·성형, 치과, 종합진료, 재활의학과 분야 진출이 '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1) '16년 기타(진료과목) :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1), 원격의료시스템(ICT) 수출(1), 연락사무소(10)

주2) '15년 기타로 분류되어 있던 암진단 1건을 재분류

〈그림 3. 진출진료과목 운영현황(최근 2개년, 누적치)〉

- ① (피부·성형외과) 한류의 영향권에 있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에 피부·성형외과 진출이 집중됨

-한류의 영향 및 한국의 의료면허 인정(신고)이 비교적 수월한 이유로 진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베트남에서 피부·성형분야의 의료기술 이전 형태(프랜차이즈) 진출이 증가함

- (치과) 강한 진출의지를 보이는 한국 치과의사가 치과기술에 대한 전문성 및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 프랜차이징(의료기술 이전),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방식의 진출을 확대함
 - (치과의 미국진출)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활용하여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치과 가맹점(프랜차이징) 진출이 크게 확대됨
 - * 미국에서 의료진 간의 공동투자 및 공동경영이 허용되는 점을 활용한 멤버십 제도 도입(미국 내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회원가 적용), 미국 현지인들로 의료진을 구성하는 맞춤형 현지화 전략
 - (치과의 중국진출) 한류의 영향으로 심미, 교정분야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면서 출장진료 형태에서 수탁운영 및 의료기술 이전 형태로 전환됨

〈표 3. 국가별 진출진료과목 운영현황(누적치)〉

(단위: 건)

	중국	미국	베트남	카작	UAE	몽골	인니	말련	일본	기타	합계
피부·성형	36	0	6	0	0	0	4	2	1	8	57
치과	13	17	1	1	0	0	0	0	0	1	33
한방	1	18	0	1	0	0	0	0	1	1	22
종합진료	3	1	0	0	3	0	0	0	0	2	9
신경·정형	0	0	0	1	2	1	1	0	0	0	5
건강검진	2	0	0	2	0	1	0	0	0	0	5
산부인과	0	2	1	0	0	0	0	0	0	0	3
재활의학과	1	0	0	0	1	0	0	0	0	0	2
진단검사 의학과	0	0	0	0	0	1	0	0	0	1	2
내과	0	0	0	0	0	1	0	0	0	0	1
암	0	0	0	1	0	0	0	0	0	0	1
안과	1	0	0	0	0	0	0	0	0	0	1
이비인후과	1	0	0	0	0	0	0	0	0	0	1
줄기세포 치료	0	0	0	0	0	0	0	0	1	0	1
기타	1	2	1	1	1	2	1	1	0	2	12
합계	59	40	9	7	7	6	6	3	3	15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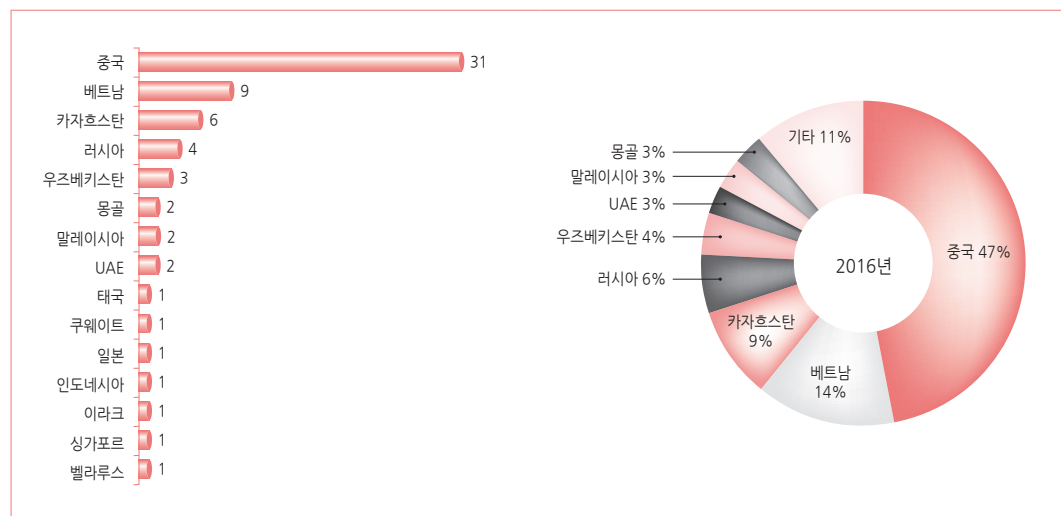
주1) 기타(진료과목): 병원정보시스템(HIS) 수출(1), 원격의료시스템(ICT) 수출(1), 연락사무소(10)

주2) 기타(국가): 싱가포르(2), 대만(2), 태국(2), 필리핀(2), 방글라데시(1), 인도(1), 카타르(1), 사우디아라비아(1), 캐나다(1), 페루(1), 벨라루스(1)

2.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준비 현황

- (진출준비 프로젝트) '16년 해외진출을 준비중인 프로젝트는 총 66건임
- (진출국가별 준비 현황) 진출을 준비중인 66건의 프로젝트의 47%가 중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남아시아, 러시아·CIS 지역의 신흥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가 41%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향후 진출국가의 다변화가 예상됨
 - * (동남아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CIS)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동남아시아) 과거 한류 영향권에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에 피부·성형 분야의 진출이 일반적이었으나, '16년 정형·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암검진, 심장외과 등 특수·전문분야에 대한 수요가 상당한 것을 확인함
 - * '16년 베트남 시장조사를 위한 국제병원, 미곡병원, FV병원 인터뷰 결과
 - (러시아·CIS) 카자흐스탄의 경우 민영의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주요 진출대상 국가로 주목받아 왔으나, 한국 의료인 면허가 인정되지 않고 수가가 맞지 않아 현지병원과 협력을 통한 원격진료 및 사전사후관리센터 등 환자유치의 거점으로 진출목적이 전환되는 추세임
 - * '15년 카자흐스탄 환자 유치실적은 총 12,567명으로 전년 대비 56.7% 증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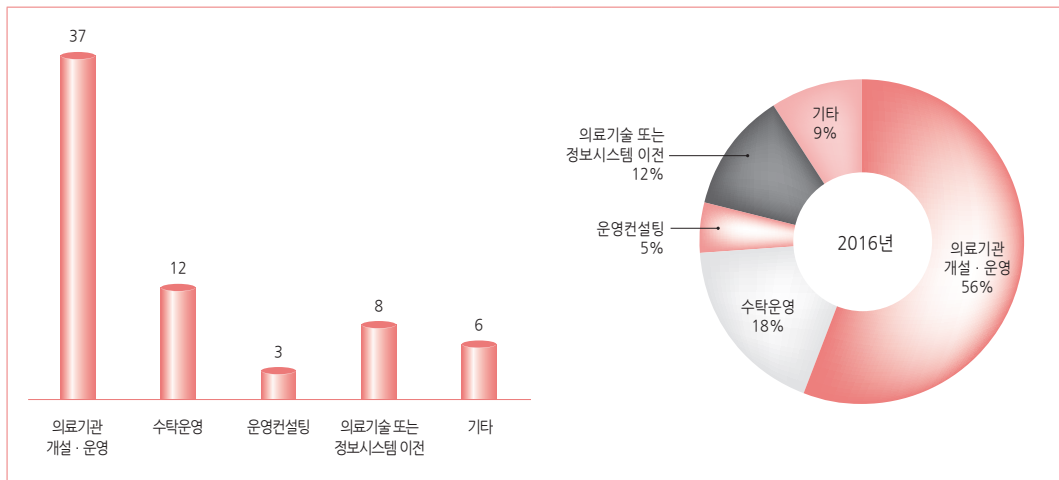


주) 기타(국가) : 태국, 쿠웨이트,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싱가포르, 벨라루스 각 1건

〈그림 4. 진출 국가별 준비 현황〉

- (진출형태별 준비 현황) 진출준비 프로젝트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진출이 3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수탁운영 12건, 운영권선택 3건,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8건으로 나타남
 -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 진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금융조달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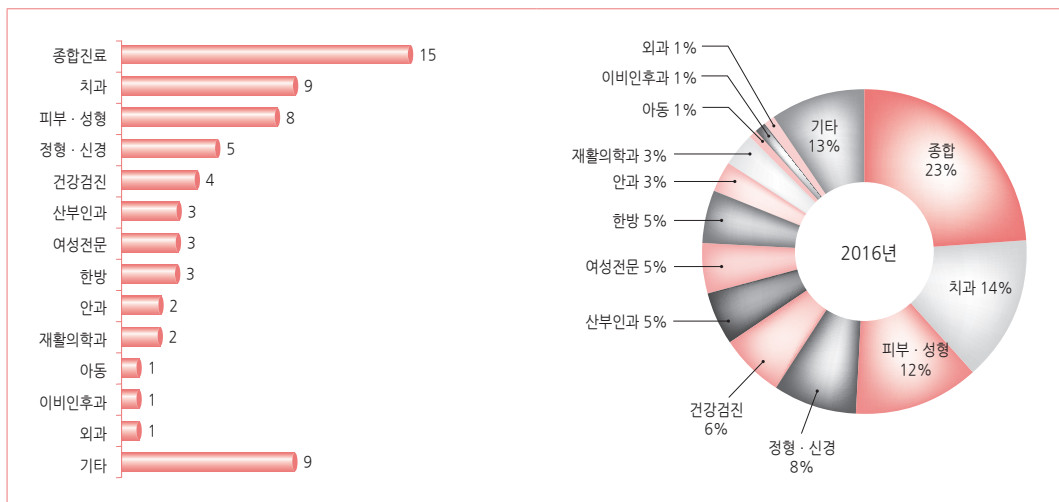
주) 현지 파트너와 계약형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기타로 분류

〈그림 5. '16년 형태별 진출준비 프로젝트 현황〉

① (진료과목별 준비 현황) 종합진료의 해외진출 준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 치과 9건, 피부·성형 8건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6년 종합진료(15건), 정형·신경외과(5건), 여성전문(3건), 산부인과(3건), 재활의학과(2건)와 같이 전문화된 의료분야의 프로젝트 진출 준비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문·특수 분야의 해외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피부·성형분야는 의료기술 이전 형태(프랜차이징) 중심으로 운영중에 있으나, 진출준비 프로젝트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기관 개설·운영(해외직접투자) 형태 진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건강증진센터(1건), 만성질환관리(1건), 건강관리호텔(1건), 의료관련 소프트웨어(1건) 등 의료서비스가 융합된 신규 사업분야 프로젝트가 준비중에 있어 해외진출 프로젝트의 사업모형 다각화가 예상됨

(단위: 건)



주) 기타(진료과목): 건강증진센터, 만성질환관리, 건강관리호텔, 의료관련 소프트웨어 등

〈그림 6. 진료과목별 준비 현황〉

IV

요약 및 시사점

■ 의료 해외진출 현황

- 국내 의료기관의 누적 해외진출은 '16년 20개국 155건으로, '15년 141건 대비 10% 증가함
 - (진출국가) '16년 신규 진출국가는 방글라데시, 카타르, 페루 3개국이며, 운영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가 많은 상위 5개국은 중국(59건), 미국(40건), 베트남(9건), 카자흐스탄(7건), UAE(7건)임
 - (진출형태) 운영중인 해외진출 프로젝트 155건은 진출형태별로 의료기관 개설·운영 49건, 수탁운영 8건, 운영컨설팅 10건,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78건, 연락사무소 10건임
 - (진료과목) '16년 진출 진료과목은 피부·성형 57건, 치과 33건, 한방 22건, 종합진료 9건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원격의료시스템(ICT) 수출 1건이 새롭게 추가됨

■ 의료 해외진출 전망

- 향후 한국의료 해외진출은 신흥국을 대상으로 전문·특성화 분야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해외직접투자)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진출국가) 동남아, 러시아·CIS 등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진출국가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임
 - (진출형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운영 형태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융조달 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 (진료과목) 종합진료, 정형·신경외과, 여성전문,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특성화 분야의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됨
 - * 정부 지원사업인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14년 이전 11건, '14년 7건, '15년 2건, '16년 4건, '17년 6건(개원예정)의 전문·특성화 병원 해외진출 성과를 달성함
- '17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온라인)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규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조사·분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 * 신고인은 KOHES포털(www.kohes.or.kr)에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후, [의료해외진출지원사업] →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 [온라인신고]에서 신고
 - 「의료해외진출법」시행('16.6.23) 이후 의료 해외진출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당해연도 해외진출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인 정보 수집이 가능해짐
 - '17년 한국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스템(온라인) 구축·운영을 통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신고가 보다 용이해짐
 - 향후 신규로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면서 현황조사의 한계점은 보완될 것으로 예상됨

- 집필자 : 의료해외진출지원단 하지봉, 양지영
- 문의 : 043-713-8365
- 본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본 간행물은 보건산업통계포털(<http://www.khiss.go.kr>)에 주간단위로 게시되며 PDF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KHISS
보건산업통계시스템
www.khiss.go.kr